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across different time slots.

“사랑은 위기 넘기는 것이 중요”

지니TV ‘남이 될 수 있을까’ 강소라, 결혼·출산 후 복귀 ‘데뷔할 때보다 더 떨려요’

결혼과 출산으로 한동안 연기 활동이 뜸했던 배우 강소라가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로 오랜만에 시청자들을 만났다. 강소라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남이 될 수 있을까’ 제작발표회에서 “데뷔할 때보다 더 떨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소라의 드라마 출연은 ‘변혁의 사랑’ (2017) 이후 6년 만이다. 영화도 특별 출연으로 잠깐 얼굴을 비친 ‘비와 당신의 이야기’ (2021)를 제외하면, 결혼 전 개봉한 ‘해치지 않아’ (2020)가 마지막 작품이다. 강소라는 “일을 좀 쉬다 보니 복귀할 때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며 “그때도 현장에서 다른 배우분들, 감독님들이 편하게 맞아줘서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이 될 수 있을까’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사랑과 인생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로 강소라는 ‘소송의 여신’으로 불리는 스타 변호사 오하라 역을 맡았다. 강소라는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하지만 사적인 면에서는 미숙한 면이 있는 반전 있는 캐릭터”라고 배역을 소개했다.

또 강소라는 결혼과 출산을 겪은 이후 로맨스 작품을 하면서 감정 이입을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연인일 때의 이별과 결혼 이후의 헤어짐은 무게감이 다르다 보니 이혼을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로맨스를 다룬 많은 작품이나 동화책을 보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끝난다”라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은 결혼에 골인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 사랑을 유지하고 위기를 넘기느냐다”라고 덧붙였다. 극중 오하라의 전 남편이자 이혼 변호사인 구은범 역은 배우 장승조가 연기했다. 오하라와 구은범은 이혼 후 완전히 남이 돼 살다가 어느 날 같은 법률 사무소에서 재회하게 된다. 장승조는 “청춘남녀가 아니라 이혼남녀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다루는 소재가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드라마에는 두 사람 외에도 성격이 강한 ‘상여자’ 강비취 역에 조은지와 종갓집 5대 독자 권시욱 역에 이재원이 출연해 재미를 높인다. 연출을 맡은 김양희 감독은 “이혼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다른 로맨스와 차별점을 두려고 했다”며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랑 앞에서는 미숙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드라마를 통해 ‘미숙해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NA 새 예능 ‘오은영 게임’ 24일 첫 방송

‘육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오은영 박사가 아이가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놀이법을 전수한다. 오 박사는 지난 18일 온라인으로 열린 ENA 새 예능 ‘오은영 게임’ 제작발표회에서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느냐는 많은 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만 들었다”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오은영 게임’은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자극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부모들이 아이들과 놀면서 실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 박사는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게 다 완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줘야 한다”

며 “그게 바로 놀이”라고 설명했다. ‘오은영 게임’에서는 아이들을 발달 영역에 따라 관계, 신체, 언어, 인지, 정서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놀이법을 선보인다. 오 박사는 “아이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살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5가지 발달 영역이 있다”며 “5가지를 꼭짓점으로 연결하면 오각형이 나오는데, 놀이를 통해 이 오각형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에는 패널로 출연하는 배우 안재욱, 정준호, 인교진 등 아빠들이 오 박사의 조언에 따라 자녀와 놀아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도 공개된다. 오 박사는 “방송 말미에는 3세부터 오는 24일 첫 방송. /연합뉴스

터 7세까지 다섯 연령대의 아이가 52주 (1년)간 할 수 있는 260개의 놀이 콘텐츠도 준비돼 있다”며 “매주 놀이를 잘 따라가면 아이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로그램 MC를 맡은 신동엽과 이민정도 자녀가 있는 시청자들의 공감 포인트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신동엽은 “방송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이구나’, ‘우리 아이는 이 부분이 덜 발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엄마와 아빠가 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놀이법도 공개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독한 맛 유지가 장수 비결이죠”

‘라디오스타’ 800회

“라디오스타”는 16년이나 됐지만, ‘독한 맛’을 유지하고 있죠.”(김구라) 2007년 5월 30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MBC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가 18일 800회를 맞았다. 첫 방송부터 진행을 맡아온 김구라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열린 ‘라디오스타’ 800회 기념 간담회에서 프로그램의 장수 비결로 “독한 맛”을 꼽으며 “시청자들에게 야성 있는 프로그램으

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구라는 “방송계는 흥망성쇠가 정말 심한 편인데, 오랜 세월을 버텨온 우리 MC들도 대단하고 제작진,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라디오스타’는 지난 16년 동안 게스트 중심의 토크쇼라는 형식을 유지해왔다. 특히 진행자들의 거침없는 입담과 날카로운 질문은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관찰 예능이 주를 이루는 지금의 예능 판에서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김구라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른 토

코쇼와 다르게 해왔고, 요즘 아주 순해졌다고 하더라도 특유의 ‘독한 맛’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구진은 ‘독한 맛’도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순한 맛’도 더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라디오스타’는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었던 것 같다. 분위기가 추웠고, 출연진은 방한복을 입으려고 했다”면서 “요즘은 봄도 있고 여름도 있다. 독한 맛과 더불어 온기도 있다”고 짚었다. 연출을 맡은 이윤화 PD는 “최근 웹 예능 프로그램들은 MC가 돋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지만, ‘라디오스타’는 이미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이어서 게스트에 집중하는 진정성을 갖춰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1월 20일 (음력 12월 29일)
Grid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辰, 申, 丑, 巳, 酉, 寅, 午, 戌, 卯, 未, 亥)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